

송아지 콕시듐증의 유일한 해결책

# 바이콕스 5%



바이콕스 5%는 송아지 콕시듐증으로 인한 사료효율 저하, 증체량 저하 및 다른 소화기 질병에 대한 감수성의 증가를 예방하여 농장의 수익성을 향상시켜 줍니다.

항생제 치료로 효과가 없어 생산성에 지장을 초래한 송아지 콕시듐증, 이제 바이콕스 5% 1회 투여로 콕시듐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## 송아지 콕시듐증이란?

- 원인체: 송아지에서 콕시듐은 아이메리아(Eimeria) 속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종은 아이메리아 보비스(E. bovis)와 아이메리아 주에르니(E. zuernii)입니다.
- 임상증상: 수양성 설사, 혈변, 식욕저하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심한경우 폐사에 이르게 되는 질병입니다.
- 발생: 주로 1~9개월령의 송아지에 다발하며 송아지 입식 2~3주 후에 다발합니다.

## 바이콕스 5%의 특징점

- 바이콕스 5%는 효과가 확실합니다.

바이콕스 5%는 콕시듐 원충의 모든 세포내 기생 단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확실한 예방 및 치료효과를 발휘합니다.

- 바이콕스 5%는 1회 투여로 확실한 효과를 나타냅니다.

바이콕스 5%는 투여후 즉시 약효과 발휘되며, 단 1회 투약으로 완전한 효과를 나타냅니다.

- 바이콕스 5%는 안전합니다.

바이콕스 5%는 추천 용량의 2배를 사용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.

- 바이콕스 5%는 콕시듐증에 대한 면역을 촉진시킵니다.

바이콕스 5%는 콕시듐증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치료후 면역형성을 촉진시켜 재감염에 대해 강한 저항성을 나타냅니다.

## 용법 및 용량

- 송아지 체중 10kg당 본제 3mL를 물이나 대용유에 섞어서 1회 경구투여 합니다.

- 콕시듐증 발생이 예상되는 농장에서는 송아지 입식 2주 후에 예방적으로 투약하는 것이 좋습니다. 예방적 투여로 설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송아지로의 전파도 막을 수 있습니다.

- 송아지 콕시듐증의 단독 감염인 경우 바이콕스 5% 투여 1~2일 후 설사가 멈추게 됩니다. 그러나 설사가 지속된다면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복합 감염이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. (BSE)